

생보사, 1분기 순익 45% ↓... GA 강화로 수익채널 다각화

〈판매전문기자회사〉

생명보험사가 휘청이고 있다. 올 1분기 순이익이 크게 줄어 들면서다. 이에 따라 주요 생보사들이 판매전문회사(GA)를 강화해 가며 수익채널 다각화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분기 보험사순이익은 3조51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사의 실적은 개선됐지만 생보사의 순이익이 급감한 영향이 컸다.

실제 올 1분기 손보사는 전년 동기보다 25.4% 늘어난 1조6519억원의 순이익을 거둬들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반사효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 등이 개선되면서다.

반면 생명보험사의 순이익은 1조399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2%나



푸르덴셜 'KB라이프파트너스' 출범 자산가·특화시장으로 고객접점 확대

삼성생명금융서비스 8개 지사 영업 설계사가 생보·손보 23곳 상품 제공

급감했다. 저축성보험 매출 감소로 보험영업이익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채권 등 금융자산처분이익과 배당수익 감소로 투자영업이익도 줄었다. 여기에 금리 상승에 따른 보유자산 평가 가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생보업계의 수익성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생보사들은 수익 채널 다각화를 위해 GA 영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푸르덴셜생명보험은 자회사형 GA 'KB라이프파트너스'를 출범했다. KB라이프파트너스는 푸르덴셜생명과 '최고의 인재와 담대한 혁신으로 가장 신뢰받는 라이프파트너'라는 비전을 공

유한다는 전략이다.

KB라이프파트너스는 자산가와 특화시장(법인·전문직)으로 고객 접점을 확대해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한다. 이를 통해 KB금융그룹 내 대표 아웃바운드 모델로 성장해 KB금융그룹과 고객을 연결하는 중추적인 역할도 맡게 될 전망이다. ▲부동산 ▲가업승계 ▲상속 ▲법인 자금 ▲개인 자산 등 각 특성에 맞춘 종합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다.

출범과 함께 KB라이프파트너스는 생보사 3개, 손보사 6개와 제휴도 완료했다.

삼성생명의 자회사형 GA 삼성생명금융서비스도 라이나금융서비스와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8개 지사를 영입했다. 5월 중 설계사 등록을 마무리하고 6월부터 삼성생명금융서비스 소속

GA로 영업을 시작했다. 해당 설계사는 13개 생보사, 10개 손보사의 보험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

삼성생명금융서비스는 지난해 12월 유니온사업추진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해 지속가능한 영업조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사전준비를 해왔다. 이후 지난 3월 외부 2개 지사에 이어 라이나금융서비스 8개 지사를 영입하는 등 비전속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는 7월 유니온사업추진 TF를 사업 기본부로 격상해 본격적인 규모 확장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노태환 삼성생명금융서비스 대표이사는 "회사의 시스템과 삼성의 브랜드 파워를 활용해 GA업계의 대표적인 모델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48시간에 1000원 '레저 보험' 카톡서 출시

보험 브리핑
롯데손보 상해 10대담보 보장 확대
KB손보 2860억 공모사채 발행
흥국생명 흥국스타 어워즈 93명 수상

롯데손보는 '렛:세이프(let:safe) 레저투데이보험'을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let:safe 레저투데이보험은 연령과 성별에 상관없이 1000원의 합리적인 보험료로 48시간 동안 보장을 제공한다.

특히 레저활동의 상해위험 10대 담보(골절진단비, 골절수술비, 5대 골절진단비, 5대 골절수술비, 김스치료비, 상해입원일당, 외상성 척추 손상 수술비, 무릎 인대·연골 수술비, 아킬레스건 손상 수술비, 관절(무릎, 고관절) 손상 수술비)로 기존의 보장을 크게 확대했다.

앞서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 '신차타이어교체보험'을 출시한 롯데손보는 사내 E-커머스 보험 전담 조직을 통해 창의적 서비스 개발 및 제휴를 이어가고 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let:safe 레저투데이보험은 합리적 보험료로 폭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창의적인 보험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혁신적인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형준 흥국생명 대표(왼쪽 세번째)가 '흥국생명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임직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흥국생명

KB손보는 후순위 공모사채 지속가능채권(Sustainability Bond) 2860억원을 발행했다. 신 지급여력비율(K-ICS) 제도 도입에 대비해 자본건전성을 확보하고 ESG경영 실천을 위해서다.

이번에 발행한 지속가능채권은 10년 만기, 5년 콜옵션 후순위 채권이다. 이를 통해 KB손보의 지급여력(RBC)비율은 약 12%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흥국생명은 연도대상 시상식인 '2021 흥국 스타 어워즈'를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에선 챔피언, 본상, 금상, 신인상 등 총 93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21 흥국 스타 어워즈' 챔피언은 충

청지사 김찬진 보험설계사(FC)가 수상했다. 김찬진 FC는 챔피언을 비롯해 '자랑스러운 흥국영업인', '스마트 FC' 부문에서도 수상하며 3관왕의 업적을 달성했다. 특히 판매 실적뿐만 아니라 리크루팅, 유지율, 스마트 청약, 불판·민원 등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이뤘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영업 환경 속에서 한 해 동안 흥국 영업가족 모두가 보여준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올해도 고객 중심 경영을 통해 우리 모두가 고객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진실한 신뢰관계를 이어 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KB국민은행 '스타뱅킹 e스포츠 대회' 개최

내달 7일~11일 참가자 접수

KB국민은행이 MZ세대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KB국민은행은 모바일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와일드 리프트' 아마추어 챔피언을 선발하는 'KB스타뱅킹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이번 'KB스타뱅킹 e스포츠 대회'는 오는 7월 7일까지 KB스타뱅킹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7월 11일까지 대회 페이지에 참가코드를 등록해 팀을 구성하며 팀 구성은 후보 선수 2명을 포함해 최대 7명까지 가능하다.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의 예선을 통해 본선에 진출할 4개 팀이 결정되며 대회 본선은 7월 23일에 진행된다. 본선의 경우 오후 4시부터 KB국민은행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와일드 리프트 전문 중계진의 해설과 함께 생



중계될 예정이다.

본선 진출 팀에게는 총 11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대회 참가자 전원에게 와일드 리프트 무작위 스킨 상자와 리브 엠(LiivM) 통신비 혜택이 주어지며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는 CU 모바일 쿠폰도 제공한다.

대회 관련 자세한 내용은 KB스타뱅킹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꾸집힌 경품과 함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e스포츠 대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라며 "앞으로도 e스포츠 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MZ세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백지연 기자

"보험관련 궁금증 카톡으로 물어보세요"

손보협회, 카카오톡 상담채널 오픈

손해보험협회가 카카오톡을 통한 일반상담 및 자동차보험 관련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신속한 궁금증 해결에 나선다.

손보협회는 오는 14일 금융협회 중 최초로 카카오톡 상담채널을 정식 오픈한다고 13일 밝혔다. MZ세대 보험소비자의 특성 등을 고려해 언택트 서비스

제공 확대 및 모바일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다.

일반 보험소비자가 어디에서든 쉽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카톡상담 시스템을 도입해 보험소비자 간의 소통창구를 확대했다. 특히 전문상담역을 통해 자동차보험(과실비율 포함) 관련 전문상담 서비스를 실시간 카톡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손보협회는 지난 12월부터

6개월의 시범운영을 통해 상황별 효율적인 응대를 위해 매뉴얼을 정비했다. 또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위한 운영 프로세스 개선 및 상담역 교육도 실시했다.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보험상품별 자주 하는 질문 제공, 보험가입조회, 보험다모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등 협회 각종 서비스도 안내할 방침이다.

해당 서비스는 손보협회 상단에 있는 카톡상담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모바일 카카오톡 내에서 '손보협회 통합서비스센터'를 채널 추가해 접속 가능하다. /백지연 기자

빗썸, 준법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ISO37301(준법경영시스템) 사후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며 국제표준 인증을 2년 연속 유지하는데 성공했다고 13일 밝혔다.

빗썸은 지난해 7월 가장 먼저 ISO37301을 획득한데 이어 사후심사까지 적합 판정을 받았다. 원화마켓을 지원하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ISO37301을 보유한 곳은 빗썸이 유일하다.

ISO373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2021년에 제정한 국제표준이다. 국제표준 인증 취득은 기업의 준법경영 시스템을 공신력 있는 제3기관이 평가하고 입증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내에서는 ▲금융지주사 ▲증권사 ▲카드사 등 주요 금융기업이 주로 취득한다.

빗썸은 지난달 말 국제표준의 효과성을 심사하는 사후심사에서 최종 인증유

지 승인(적합) 판정을 받았다. 심사는 한국준법진흥원(KCI)이 담당했으며 관련 부서의 윤리와 준법경영에 대한 인식, 사내 위험 관리 시스템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빗썸은 이번 심사결과에서 부적합 판정을 하나도 받지 않을 만큼 준법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성공했다. 특히 빗썸 준법관리부서에서 시행하는 위험관리 통제 시스템이 구체적이며 업무단위가 잘 분류돼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빗썸 컴플라이언스 관계자는 "지난해 업계 최초 준법경영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사후심사까지 가장 먼저 성공적으로 매듭을 지었다"며 "앞으로도 빗썸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윤리적, 법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성 기자 ysl@